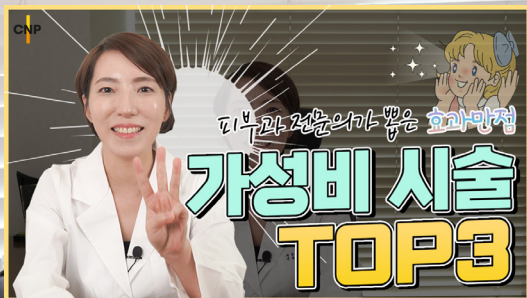


On air 365일 피부 진료실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REC



건대입구
차앤박피부과

김세연
대표원장

의사 유튜버 춘추전국시대

차앤박피부과는 지난 7월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 언제 어디에서나 영상을 통해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내친김에 여기 SNS 소통을 결심하며 유튜버 도전에 나선 건대입구차앤박피부과 김세연 피부과전문의의 촬영 현장을 찾았다. 응원이라 쓰고, 급습이라 말한다.



마스크 일상화가 가져온 ‘마스크 색소’ 주목

코로나로 인해 급증하는 트러블을 비롯해 다양한 양상의 환자군이 있는데 김세연 피부과 전문의가 주목하는 영역은 ‘색소’다. 워낙 기미 색소는 피부과 치료의 기본이지만 마스크 일상화로 인해 더욱 극심해진 부위가 있다는 것.

“대부분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마스크 경계선 부분이 다른 노출 부위보다 더 진합니다. 겨울철 스킨 탈 때 흰 눈에 반사된 자외선으로 인해 색소가 심해지는 원리와 유사해요. 결국 부위별로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료시에도 꼭 신경쓰며 살피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활화 이후 해당 부위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자외선 차단에 소홀해지는 겨울철, 다시 한번 자외선 차단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설명이다.

가성비 시술 TOP 3 & 마스크 트러블

이번 촬영 에피소드는 2가지다. 피부과 시술 중 가성비 갑으로 생각되는 베스트만을 뽑아 소개한다. 말그대로 임상 결과를 콕콕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피부과 전문의가 뽑은 효과만점 가성비 시술 TOP3는 무엇일까. 지금 차앤박피부과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에피소드는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 예방법을 담았다. 2년 가까이 들었던 내용이라 식상하다고? 그렇지 않다. 진료 현장에서 마주한 환자들 사례에서 나온 실제 상황. 그것에 근거해서 트러블을 예방하는 방법이니 꼭 숙지할 만하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쓰기는 유지할 것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피부과 전문의가 짚어주는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 예방법에 아직은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n air 365 피부진료실 차앤박피부과 유튜브로 고고씹!!

진료실 플러스, 유튜브에서 말하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이내 촬영을 마무리한 김세연 피부과 전문의. 소감을 문자 방송 촬영이나 잡지사 화보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어제까지 다른 의사들의 영상도 보면서 나름 준비를 했는데도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도 진료실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 낼 수 있었던 부분은 좋았습니다. 유튜브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진료실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고 싶다는 김세연 피부과 전문의. 최근 리프팅을 필요로 하는 연령대가 낮아진 부분도 관심사다.

“우리 병원도 개원 초에는 안티에이징 보다는 여드름이나 기타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가 많은 편이었는데 점점 피부 톤이나 리프팅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했을 때 피부도 잘 관리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긴장감 고조!!
유튜브 촬영 현장